

영암 대불산단 컨테이너 숙소 화재 무방비

15개소 111명 거주...실내서 취사용 가스렌지 사용

전기 난방에 기초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

영암 대불산단에서 일부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대불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숙소

20개소에 대한 취약환경 개선과 대형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불산단 내에는 숙소형 컨테이너 15개소에 111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중 외국인 노

동자 109명을 차지했다. 업체 측은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숙박비에 부담을 느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시숙소 형태의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부 컨테이너의 경우 안에서 가스렌지 등을 갖추고 취사까지 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영암소방서는 분석했다.

또 대부분이 전기시설로 난방을 해

결하고 있었으며 전열기구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기초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았다.

영암소방서 측은 소방안전교육을 권고하고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도록 한 뒤 다음 달 중순에 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컨테이너 숙소는 지난 2월3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금형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

는 등 겨울철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화재발생 때 초기 대응이 가능함에도 소방 시설 사용법을 몰라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과 시설점검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담양공고생들의 끼 발산

학생·교직원 '청축제' 이어 체육대회까지 화합 한마당

담양공고(교장 장시준)는 최근 전교생이 함께하는 축제 '청축제'와 체육대회를 열어 학생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끼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각 학과별로 준비한 친환경 냄비 받침대 만들기, 명판 만들기, 광섬유를 이용한 장식물 만들기, 프로펠러 자동차 카드 제작 등 다양한 부스를 창의적으로 준비하고 학생들이 서로 체험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또 청축관에서 열린 공연과 밴드, 풍물 관악부 등 동아리별 노래와 춤 등 그동안 갖고 있던 숨은 재능을 맘껏 발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축제에 이어 벌어진 체육대회는 '다함께! 군세계! 끝까지!'란 슬로건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다. 장시준 교장은 "요즘을 안전 때문에 각 학교에서 마라톤을 실시하는 것이 보기 힘든데, 사전에 안전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한후 5~10km 코스를 준비하고 모든 학생들이 열의 없이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학생회 주관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해 호평을 받았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별주부의 아름다운 선물'은 뭘까요

담양군은 '찾아가는 어린이 연극'의 일환으로 25일 담양군 문화관에서 두차례에 걸쳐 관내 어린이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극 '별주부의 아름다운 선물'을 무료로 공연했다.

담양군은 '찾아가는 어린이 연극'의 일환으로 25일 담양군 문화관에서 두차례에 걸쳐 관내 어린이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극 '별주부의 아름다운 선물'을 무료로 공연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노화방지에 당뇨·치매 예방까지

'강진 회춘탕' 만한 게 있나요

군, 대표음식 육성 추진

강진의 전통 고유 보양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강진 회춘탕'이 실제 노화 방지와 당뇨예방 등의 물질이 함유된 기능성 음식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예로부터 강진의 고유 전통 보양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강진 회춘탕을 군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회춘탕의 육수제조 및 조리과정 규격화, 성분·효능분석을 통한 회춘과의 연관성 규명 등을 위해 지난 6월 광주여자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다.

문어, 전복, 닭고기 주재료인 강진회춘탕은 예로부터 강진 마라탕만 호성 주변에서 보양식품으로 전해져 왔다.

마라탕 일부 식당에서 주재료와 함께 헛개나무, 가시오가피 등 한약재를 넣어 만든 강진회춘탕이 큰 인기를 끌자 군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성분·효능분석을 담당한 광주여대 윤정미 교수는 지난 21일 강진군청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강진회춘탕은 항산화 물질들이 다양 함유돼 있고 항당뇨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미하지만 인지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윤 교수는 이어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는 물론 상당한 항당뇨 효과, 미미하지만 치매예방 능력이 확인된 것은 강진회춘탕이 실제로 회춘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같은 대학 김지현 교수는 이날 강진 회춘탕 조리방법과 육수제조 과정 등을 공개 시연하고, 참석자들은 상차림을 보고 시식도 했다.

군은 강진 회춘탕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강진 회춘탕 취급 업소를 지정하고 상표등록도 추진하는 등 강진회춘탕과 함께 강진 특산물로 육성할 방침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전북



남원 친환경 급식시설 기공

남농영농법인, 인근 5개 학교 공급 MOU 체결

남원시는 25일 "지난 22일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에서 남농영농법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시설장비 지원사업 기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기공식은 전북도청, 남원교육지원청, 친환경농산물생산 작목반, 지역주민 등 관내 유관기관·단체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근 시·군 5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현대화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망도 확보했다.

남원은 해발 700m 고령지까지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를 통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최근 서울 노원구, 부산 연제구 등의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소비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농영농법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쌀 공급업체로, 남원시 관내 학교급식을 비롯한 장수·진안·무주·임실·순창 등 전라북도 10개 시·군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공급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기반 확대와 현대화 공급·공급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정읍 영어캠프 참가자

다음달 6일까지 모집

정읍시는 25일 "내달 6일까지 2013년 동계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도 4~6학년, 중학교 1~2학년으로 모두 46명(일반 40명, 수급자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

시청 교육체육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hoonju12@korea.kr), 팩스(063-539-6509)로 접수가 가능하다. 발표는 내달 18일 우석대학교 홈페이지(www.woosuk.ac.kr) 및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용은 110만원이지만, 정읍시에서 70만원을 지원해주며 자부담 40만원,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

대한지적공사, 첫 업무 시작

혁신도시 이전 두번째 공공기관...신입사원 채용시 5% 지역인력 선발 계획

대한지적공사가 25일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적공사는 전북 혁신도시로 옮기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행정연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입주한 공공기관으로, 임직원 24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전주시 완산구 중동에 자리한 지적공사의 신사옥은 2만988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전체면적 1만3832㎡ 규모로 지어졌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공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5%를 전북 출신으로 하는 '지역인력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사무보조,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인력도 지역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적공사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18일부터 부서별로 나눠 이사했으며 민원·전산시스템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전주시는 지적공사의 안정과 발전을 비는 지신밧기를 하고 한지 손수건을 전달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대한지적공사의 이전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표 지적공사 사장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은 공사가 공간정보를 메카로 도약하는 제2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전주·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한우품평회

지역 한우사육농가들이 한우 32두를 출품했다.

지난 22일 정읍시 정우면 순정축협 가족시장에서 열린 제10회 정읍가족품평회에서 경산우 대상에 정우면의 김순아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품평회에는 정읍지역 한우사육농가들이 한우 32두를 출품했다. (정읍시 제공)

단신

전국 판소리 왕중왕전 광주 송우초 유승은양 대상

어린이 판소리 부문 최고의 등용문으로 25일 고향문화의전당에서 펼쳐진 제26회 전국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전에서 광주 송우초 2학년 유승은(9)양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 사단법인 동리문화사협회와 KBS 전주방송총국이 주최한 이날 대회는 전국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온 소리꾼

꿈나무들이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남·여 초등학생 중 2012~2013년 기간에 전국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졌다. 지난 24일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28명의 어린이들이 예선을 펼친 결과 7명이 본선에 올라 25일 실력을 겨뤘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순창 인계면 등 7곳 17억 들여 작은 목욕탕 설치

순창군은 25일 "내년 상반기까지 인계·적성·유등·금과·복흥·쌍치·구림면 등 7곳에 17억원을 투입, 면당 130㎡ 규모의 작은 목욕탕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조례제정 등 행정 절차는 마친 상태라, 연말 안에 주민의견 수렴과 건축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완

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은 목욕탕은 남녀 목욕탕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 휴수일에는 남성, 짝수일에는 여성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목욕탕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경우보일리 대신 에너지절감 설비인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설치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

정읍경찰-이동장協 '착한운전마일리지제' 협약

정읍경찰서는 25일 "지난 21일 정읍시이동장협회의와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지역 이·통장 777명이 착한운전마일리지제에 가입함으로써 지역 교통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읍경찰은 매달 2차례 읍면동사무소 이통장 회의 시 경찰서장 등이 직접 참여하는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개최해왔다.

김동봉 정읍경찰서장은 "이 제도는 능동적으로 법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주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

중국 태권도 수련자 유치 체육국 관계자 등 초청 연수

전북도는 25일 "26~29일 중국 태권도 수련자 유치를 위해 중국 상하이 등 6곳의 지방정부 체육국·태권도 협회·국제교류 관계자를 초청해 전 북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도태권도 협회와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가 참석해 중국 지역별 태권도현황과 태권

도원을 소개하고 교류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또 장우수 수석여객과 교사 해외연수를 담당하는 장우수 교육 국제교류 서비스센터 부주임도 참석해 수석여객단 유치를 위한 전북도의 매력도 함께 소개한다. /전주·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